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과 그에 대한 디자인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이금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유송옥

目 次

I. 서론	3.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색상과 직물 문양
II.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	4.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액세서리
III. 휴처리스트 선언문에 따른 남성복 디자인	IV. 결 론
1.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발생과 이념	참고문헌
2.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형태 및 기능성	ABSTRACT

I. 서론

오늘날의 服飾은 회화나 조각, 음악, 건축, 문학과 같은 여러 藝術분야와 같은 선상에 있으며 휴처리스트(futurist) 服飾 宣言文에는 이미 “패션은 건축과 음악처럼 예술이다.”¹⁾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와 결별하고 현대로 移行하는 시기에 革命的 역할을 主唱하였던 미래주의(Futurism)는 현대화된 문명 속의 다이나미즘을 강조함으로써 유럽 現代藝術 開幕의 大事件²⁾으로 藝術史적 必然性和 重要性을 갖고 있기에 그 特徵과 意義를 服飾디자인 側面에서 살펴보았다. 본 論文이 갖는 意義는 20세기 美術思潮와 服飾의 相互關係를 分析한 論文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미래주의와 服飾과의 問題를 처음으로 試圖해보는데 있다. 그리고 그간 패션디자인과 美術思潮와의 關係에 대한 理

論들은 現代 패션 디자인의 獨創性에 대한 根據를 美術樣式에 두고 服飾에 끼친 影響들을 研究해 왔다. 그러나 본 論文은 同時代의 예술가들에 의해, 服飾과 美術思潮가 同等한 맥락에서 명시되어진 휴처리스트 남성복 宣言文의 내용을 根據로 휴처리스트 남성복에 대한 理念과 性格 및 形態에 대하여 알아보고 휴처리스트 服飾 追求者들이 직접 디자인한 服飾의 實例를 찾아 그 디자인의 特徵을 分析해보았다.

본 研究 範圍는 1909년 미래주의 宣言文이 처음 작성된 해로부터 1930년대 初까지를 휴처리스트 服飾 追求者들이 活動한 時期로 限定하였다. 패션의 領域은 남성복이며 作品選定의 範圍는 이탈리아의 휴처리스트 服飾 追求者들이 試圖한 완성된 의상과 스케치를 對象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의 휴처리스트 남성복식이란 미래주의

1) Volt (Vincenzo Fani), “Manifesto della moda femminile futurista”, Rome : Roma Futurista, feb., 1920.

2) Mayer R. N., 세계상설의 문학, 장남준역, (서울 : 홍성사, 1981), p.119.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의 이탈리아에서 미래주의 藝術家들이 追求하고 주장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뜻하는 것이다. 본 研究의 方法으로는 美術史, 文化史, 裝飾史 등의 미래주의와 관련된 參考書籍과 先行論文들을 살펴보는 文獻調査와 당시 휴처리스트들의 服飾 宣言文의 내용을 토대로 한 휴처리스트 服飾 理念이 具體화된 작품을 통해 服飾의 概念, 形態, 特徵 등을 分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文獻調査와 實例調査를 토대로 하여 휴처리스트 남성복이 現代衣裳 디자인에 어떠한 방향 계시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II.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

미래주의는 現代 大都市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새로운 造形 樣式과 예술의 새로운 기능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예술로 받아들여지는데 있어 가장 極端的 試圖로 여겨지고 있다.³⁾ 미래주의 화가들은 그러한 시도중의 하나로 패션 領域에도 關與하였는데, 문서화된 선언문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복식 스타일을 널리 퍼뜨렸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들의 선언문들을 발표하였다.

발라(Giacomo Balla)의 1914년 舊版의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Le Vêtement masculin futuriste)과 같은해 再版된 反中性的의 슈트 선언문(Il vestito antineutrale), 1920년 볼트(Volt)의 휴처리스트 여성 패션에 대한 선언문(Manifesto della moda femminile futurista), 싸이아트(Ernesto Thayaht)의 1920년 뚜따 裁斷法 : 싸이아트의 직선 표본(Taglio della Tuta : Modello Thayaht a linee rette), 싸이아트와 미카엘(Ruggro Michahelles)의 1932년 남성복 變形을 위한 선언문(Manifesto per la trasformazione dell'abbigliamento maschie), 마리네티(Fillippo Tommaso Marinetti), 모나치(Francesco Monarchi), 프람벨리니(En-

iae Prampolini), 소네티(Mino Sonetti)의 1933년 이탈리아 모자에 대한 휴처리스트 선언문(Il manifesto futurista del cappello italiano) 그리고 디 보소(Renato di Bosso)와 스크르토(Ignazio Scurto)의 1933년 이탈리아 크라바트 선언문(Manifesto sulla cravatta italiana)이다.

이탈리아 아방가르드 예술가 중에서도 가장 世俗적인 사람이었던 발라는 예술이 박물관의 召命이어야 한다는 주의를 打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신 일상적인 것이며 보잘것없는 가정용품을 樣式化시킨 장식품이 곧바로 世俗적인 目的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을 上位에 두고 行해야 한다고 하였다.⁴⁾ 그리하여 그는 1914년 휴처리스트 복식에 있어서의 남성복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反中性的의 슈트 : 휴처리스트 선언문(Il Vestito Antineutrale : Manifesto futurista)

인류는 항상 징숙, 두려움, 신중, 우유부단함을 지닌채로 검은 색 슈트, 케이프, 망토, 등을 着用하였다. 남성의 신체는 늘 中性的의 色調와 色彩로 가라앉혀지고 검은 색으로 品位를 떨어뜨리며, 벨트에 의해 억압되고 여러 겹의 직물에 의해 拘束되어졌다.

지금까지, 남성들은 정적인 색채와 형태로서, 다소 엄숙하고 무겁고, 불편하며 몸을 감싸면서 성직자다운 슈트를 着用하였다. 그러한 의복들은 바로 重量感있는 재질과, 지루하면서, 나약하고 또는 퇴폐적인 中間色調의 불건전한 傳統主義에 의해 억압된 消極性, 우울함, 예속 등의 표현, 즉 남성적 삶의 거부의 表現이었다. 그 분위기와 리듬은 장례행렬 같은 침울하고 황폐한 평화와 흡사했다.

오늘날 우리 휴처리스트들은 다음의 것들을 없

3) Giovanni Lista, Balla, Howard Rodger MacLean 英譯, Modena : Edizioni Galleria Fonte d'Abisso, 1982, p.55.

4) Giovanni Lista, Giacomo Balla Futuriste, Margaret Yaldwin 英譯, Lausanne : L'Age d'Homme, 1984, p. 17.

에 고자 한다.

1. 안전하면서 바랜, 그리고 가공적이면서 어둡고 초라한 모든 中性的인 色調, 줄무늬, 체크
2. 현학적이면서 학자연한, 그리고 튜튼식의 모든 형태와 색조
3. 무덤과는 사람에게조차 적합하지 않은 상복 같은 검은 색 슈트, 영웅의 죽음은 애도되기 보다는 차라리 빨간색 의복을 입음으로써 祝賀되어야 한다.
4. 活氣를 억제시키고 저하시키는 절제된 평범함, 소위 심미안, 그리고 소위 색채와 형태의 조화.
5. 지루하고 우울하고 칙칙한 그리고 근육을 속박하는 對稱的인 절개선과 정적인 선들 : 획일적인 조잡한 라펠과 모든 주름들 ; 불필요한 단추들과 뾰뾰하게 풀먹인 칼라와 커프스들

우리 휴처리스트들은 모든 中性化, 무기력함, 우유부단함, 부정되고 있는 염세주의와 향수적이면서 비현실적이고 무기력한 불활성 등으로부터 이탈리아 민족을 解放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이탈리아를 휴처리스트 복식의 대담한 色彩로 물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탈리아인들에게 活氣차고 好戰적인 의복을 입히고자 한다.

따라서 휴처리스트 복장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攻撃性, 강자의 용기를 더욱 강화하고 약자의 민감성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2. 敏捷性, 이로 인해 신체의 유연성은 증대될 것이고, 보행이나 격투시에 운동량이 축진될 것이다.
3. 力動性, 위험과 속도와 공격에 대한 사랑과 평화와 부동성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역동적인 패턴과 색채(삼각형, 원추형, 와선형, 타원형, 원형)로 된 직물들
4. 單純性과 便安함, 즉 입고 벗기 편하고 그래서 언제든 흉을 겨눌 수 있고, 개울을 건널 수 있으며, 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

5. 衛生性, 즉 피부의 모든 땀구멍이 오랜 행진과 가파른 산행에도 숨쉴 수 있게끔 재단된다.
6. 活氣, 강렬한 무지개빛으로 채색된 소재들, 강렬한 색채의 이용, 가장 짙은 보라, 가장 강렬한 빨강, 가장 짙은 파랑, 초록, 노랑, 주홍, 오렌지 등.
7. 發光性, 두려움 많은 군중들에게 무모함을 점화시킬 수 있고 비가 올 때쯤 빛이 퍼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리 내에서와 신경내에서 여명의 어스름한 빛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형광 직물.
8. 강한 意志性, 전장터에서의 명령처럼 긴박하면서 맹렬한 그러한 강한 색채와 디자인.
9. 非對稱性, 예를 들어 소매의 맨 윗부분과 자켓 앞부분이 왼쪽은 곡이 지고, 오른쪽은 각지게 될 것이다. 독창적인 선의 대립적 배치가 될 것이다.
10. 短命性,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분방한 쾌와 활기를 일신할 것이다.
11. 可變性, 당신이 원할 때 그리고 원하는 곳에 배치를 달리함으로써(재질, 확대와 겹쳐 입음, 그리고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조합). 그 교환은 터무니없을 수도, 불편함을 줄 수도, 불안정할 수도, 결정적일 수도, 好戰的일 수도 있다.

노란 색과 검은 색의 조화는 강하게 거부될 것이다. 中性化는 모든 傳統의 綜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着裝 방식대로 行動하고 思考한다. 오늘날의 우리 휴처리스트들은 이러한 反中性的인 의복, 즉 즐겁고 好戰的인 의복을 보여준다. 이에 단지 舊세대만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우리가 우리의 긴박한 위대한 전쟁을 위해 원기왕성한 휴처리스트의 기치를 걸고 있음을 認知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의 回顧主義的 복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색기 빨강을 두배, 백배로 더 빨강게 한 옷을 입을 것이다.

빌라는 미래주의 운동의 지도부와 이탈리아의 모든 미래파 그룹들에 의해 열광적으로 支持를 받았다.⁵⁾

Ⅲ. 휴처리스트 선언문에 따른 남성복 디자인

1.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발생과 이념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리스타(Giovanni Lista)가 쓴 ‘발라(Balla)’라는 책의 휴처리스트 복식(Futurist Dress)⁶⁾이란 제목에서 미래주의(Futurism)－현대 도시(Modern City)－복식(Dress)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복식 선언문이 發表되기 이전, 칸은 1902년 그의 論文인 “거리의 미학(L’Esthétique de la rue)”에서 劇場과 都市空間 사이의 새로운 美的 同一性(a new aesthetic identity)을 확인했다. 모글레(Camille Mauclair)와 후기 상징주의의 중심 인물들에 의해 採擇되어진 신비스런 都市의 모습은 現代化된 거리와 음악 홀의 무대를 同等한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즉 자동차의 소음과 지나가는 사람의 움직임과 불빛 찬란한 간판의 리드미컬한 불빛은 同時性과 多聲의 實體를 만들어 놓았고 이는 “多様な 劇場(variety theatres)”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音響效果가 축적됨으로써 활기 넘친 쇼를 하고 있는 都市로 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네티는 1913년 이런 아이디어를 文書化하여 불빛 찬란한 간판의 모습과 거대한 도시의 生動的인 리듬을 뛰어넘는 자극적인 힘을 통하여 慶祝 받고 있는 음악당(Le Music hall)이라는 선언문을 發足하였다. 그러므로 미래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의 遠近 畫法의 공식에 따라 영상 都市와 같은 한편의 劇詩(a poetic of the

theatre as imago urbis)를 實現하면서 산업화된 都市와 관련되어 급격하고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미래주의자들이 암시하는 都市란 역사적으로 공동체를 인식하여 애써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집단에 함께 가담한 혼동된 宇宙世界 속에서 生動하는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미래주의의 신비스런 活力의 힘은 마리네티를 일종의 汎神論인 현대 都市로 이끌고 갔다. 다양한 극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실현하였으며 마리네티는 새로운 산업화된 문명의 결과인 현대 都市의 디오니소스적 경험으로 觀衆을 혼란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것을 信賴했다. 그는 또한 劇 진행 방식(the stage proceeding)의 觀點으로 행동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都市에서 劇場으로였다.

그러나 발라의 觀點을 보면, 그는 映像都市와 같은 한편의 劇詩(the poetic of the theatre as imago urbis)를 映像劇場과 같은 한편의 都市의 詩學(a poetic of city as imago theatri)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휴처리스트 복식은 오늘날 아방가르드 그룹이 주장하는 劇場行爲(theatre-behavior)의 최초의 역사적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演劇調(theatricality)는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공간으로 범위가 넓혀졌다. 말하자면 즐거운 축제의 領域은 관객 없는 극장의 觀衆적으로 튀어나온 앞무대로 여겨지는 거리로 침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술－생활－축제(art-life-gaiety)라는 공식이 발라에 의해 휴처리스트 복식 선언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마리네티의 휴처리스트 복식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그는 결정론자적 유물론 觀點의 태도로 의복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대변해 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노란색과 파란색조로 된 즐겁고 축제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⁷⁾ 수트 디자인

5) Volantino della Direzione del Movimento Futurista, Millan, September 11, 1914.

6) Giovanni Lista, Balla, Ibid., pp.59~60.

7) Mary McLeod, “Undressing Architecture : Fashion, Gender and Modernity”, Architecture : In Fashion,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80.

인 발라의 오리지널 그림을 흰색-빨강-초록의 살아 있는 이탈리아 國旗의 옷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마리네티는 이 세가지 색상의 복식을 칸질로(Francesco Cangiullo)에게 간접주의 데모때 입게함으로써 휴처리스트 복식을 전쟁을煽動하기 위한 도구로 본 그의 觀點을 나타내었다. 즉, 마리네티는 예술-생활-전쟁(art-life-war)이라는 공식으로 휴처리스트 복식을 보았던 것이다.

미래주의의 시작은 傳統의 拒否로부터 비롯하여 에너지에 의한 運動과 그 운동에 의해 速度의 概念, 더 나아가 감상주의의 파괴와 소벨과 니체의 영향인 전쟁과 혁명의 개념에 의한 국가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⁸⁾ 그리고 行動과 鬭爭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意志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사회적 役割과 역사에의 직접적 參與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문화 조정자로서의 기능에 拍車를 가해왔다.⁹⁾ 그리하여 그들의 革新的인 이념을 디자인 領域으로 끌어들이어 예술가들의 새로운 사회적 役割 任務를 실천했으며 “휴처리스트 복식은 강자의 용기를 더욱 강화하고 약자의 敏感性을 克服하기 위한 攻擊性을 갖추어야 하고 보행이나 격투시에 운동량이 촉진될 수 있는 민첩성도 갖추어야 한다”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의복에 나타냈다. 그리고 “위험과 속도와 공격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할 力動性과 입고 벗기 편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총을 겨눌 수 있고, 개울을 건널 수 있으며 물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單純性과 安樂性”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變化, 速度, 攻擊, 力動性을 좋아하는 그들의 好戰性을 복식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터에서의 명령처럼 긴박하면서 맹렬한 그러한 강한 색채와 디자인”이라는 선언문으로 보아 그들은 자신들의 강한 意志를 의복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攻擊性, 敏捷性, 강한 意志性의 好戰의 의상의 실례를 이탈리아 모자에 대한 휴처리스

트 선언문에서 “흰색 빨간색 초록색이 들어간 이 合成的이고 力動的인면서 민첩한 이 슈트는… 애국적인 시위에서 着用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휴처리스트 복식이 역동적이고 민첩함을 갖춘 정치 선동의 의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라 본다.

<그림 1, 2, 3>은 마리네티의 예술-생활-전쟁 觀點의 의상이다. 즉 마리네티를 위한 흰색, 빨강, 초록색으로 된 反중성적 슈트(anti-neutral suit) <그림 1>와 칸질로(Cangiullo)를 위한 흰색, 빨강, 파란색으로 된 反중성적 슈트(anti-neutral suit) <그림 2>이다. 그리고 보치오니(Boccioni)를 위한 흰색, 빨강, 초록색으로 된 反중성적 슈트(anti-neutral suit) <그림 3>로 선언문에서 “우리는 삼색기의 빨강을 두배, 백배로 더 빨강게 한 의복을 입을 것이다”로 攻擊的 意志를 표명하였듯이 살아있는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였다.



(그림 1) Marinetti의 anti-neutral suit 스케치, 1914

8) Joshua, C. Taylor, Ibid., p.233.

9) Giovanni Lista, 미래파, 정진국 譯, (서울: 열화당, 1991), p.7.



(그림 2) Cangiullo의 anti-neutral suit 스케치,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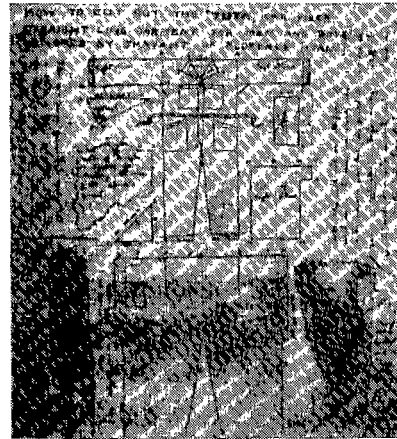
(그림 3) Boccioni의 anti-neutral suit 스케치, 1914

2.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형태 및 기능성

브릴(Suzanne Brill)이 미래주의를 描寫한 성격중의 하나가 “신성한 위생(spiritual hygiene)”인데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에도 복식 具備條件에 ‘衛生性’을 꼽고 있다. 이 위생성은 선언문에서 “피부의 모든 땀구멍이 오랜 행진과 가파른 산

행에도 숨힐 수 있게끔 재단된다.”고 表現되고 있는데 1919년 싸이아트(Ernesto Thayaht)가 디자인한 ‘뚜따(tuta)’를 통하여 알아보겠다.

<그림 4>의 뚜따 재단법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 프로렌스 지방의 싸이아트(Thayat)가 디자인한 남자와 소년을 위한 직선 形態의 원피스가 뚜따(Tuta)라고 정의되어져 있다. 그리고 밝은 색상의 줄무늬와 함께 입는 원피스로 허리 부분에서 조여 입게 되어 있으며 흰색 양말과 샌들을 신고 모자 없이 흰색칼라를 짓히고 입으면 스마트해 보이며 간단한 가죽 벨트를 하면 멋져 보인다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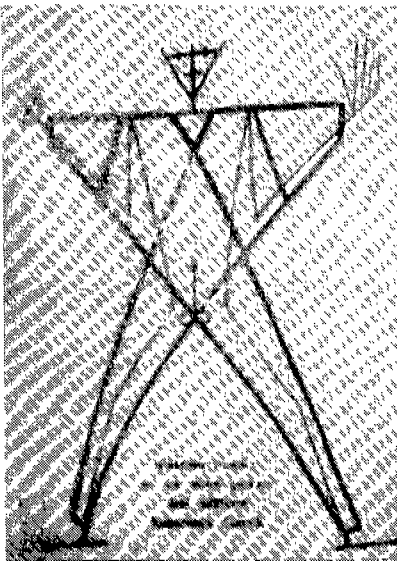
(그림 4) Thayaht의 tuta 재단법

뚜따의 자세한 재단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上下, 前後의 몸판이 큰 사각형 1장으로 되어 있어 뒤중심선을 굽고 하고 앞 중심이 단추 여빔으로 열려져 있는 幾何學的인 簡潔한 패턴으로 한번에 입고 벗게 되어 있다. 이는 원피스형으로 입고 벗기에 迅速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소매도 앞·뒤 1장의 직사각형 패턴으로 끝에 작은 사각형을 남겨 놓고 재단하여 이 끝부분을 접으면 삼각형 무의 役割로 소매 부분의 活動量을 주어 원활하게 팔을 움직이게 하였다. 이는 신체의 적절한 運動법칙에 따라 재단되어져야 함을 認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접은 소매의 넓이와 무의 넓이 부분의 길이 만큼을 몸판에서 어깨

선 끝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절개하여 소매를 몸판에 끼워 붙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바지의 앞뒤, 안쪽 바지 길이를 그대로 맞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통풍 및 바지 밑위 들레를 생각하여 삼각무 1장을 따로 재단하여 짧은 두 빗변이 뒤판 바지 안쪽 길이에 각각 맞게 박음질하고 삼각무의 긴 빗변이 앞판 바지의 양쪽 길이를 한번에 돌아 박음으로써 평면의 바지 패턴에 볼륨감을 주어 넉넉하고 便安하게 입을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선언문에서 주장했던 簡潔성과 安樂함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랜 행진과 산행에 편리하고 숨쉴 수 있게 재단 및 봉제로 되어 있는 예라 하겠다.

그리고 튜파의 또 다른 특징은 實用性으로 簡潔하면서도 어느 장소, 어느 경우애나 입을 수 있는 作業服뿐만 아니라 日常生活服으로도 입을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즉 作業服으로도 입고, 흰 칼라를 짓히고 가죽 벨트를 하고 흰 양말에 샌들을 신으면 멋져 보이는 日常服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튜파에서와 같은 대담한 절개선으로 된 幾何學的 패턴은 까라(Carrà)와 루솔로(Luigi Russolo)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예이다(그림 5).



(그림 5) 선언문에서 제시된 Carrà의 작업복 스케치, 1914

선언문의 “근육을 속박하는 對稱的인 절개선과 정적인 선들”에서 非對稱과 斜線은 속박하지 않은 편안함을 주는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까라와 루솔로의 簡潔한 幾何學的 패턴의 대각선 구조로 된 원피스는 단순성과 편안함을 주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델 씨페(Delle Site)의 디자인(그림 6)을 보면 상하가 붙은 원피스형 바지로 튜파와 같은 스타일이지만 넉넉한 품이 아닌 몸에 꼭맞는 스타일로 單純성과 敏捷性を 나타내고 있다. 디테일면에 있어서도 튜파의 칼라와 커프스를 없애고 네크라인, 소매 부리, 바지 부리를 모아 조이는 형태로 날렵함을 돋보이게 했다. 이러한 날렵한 선과 간결한 형태는 身體의 活動에 敏捷性を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휴처리스트 남성복은 신체의 활동을 고려한 재단법과 衛生性, 便安함을 추구했으며 實用性, 單純性, 敏捷性を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필요한 디테일의 제거와 날렵한 선과 간결한 형태는 신체의 활동을 妨害하지 않고 增進시켰다¹⁰⁾고 할 수 있다.



(그림 6) Delle Site의 《tuta termica》, 1932

10) Emily Braun, "Futurist Fashion", Art Journal, spring 1995,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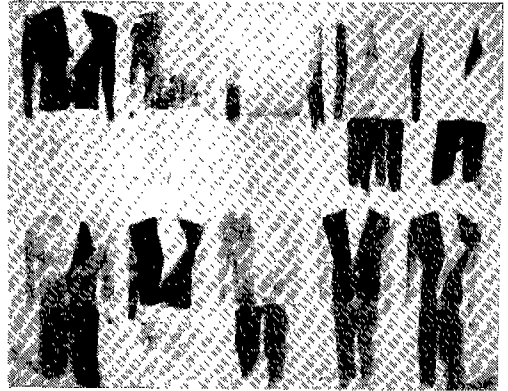
디테일면에서의 敏捷性和 速度感은 와이셔츠 디자인의 경우에서 칼라의 앞여밈 부분의 단추를 없애고 대신 앞중심의 네크를 깊게 절개한 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칼라에서는 밴드 부분을 없앴고 소매 부리 또한 커프스도 없이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했다. 크랄리(Crali)의 1932년 남성용 와이셔츠 디자인은 오픈 네크로 敏捷性を 表現하였다. 그리고 뚜따의 경우에는 남성용 와이셔츠를 따로 입을 필요 없이 흰색으로 된 안쪽 칼라를 짓히기만 하면 셔츠를 입을 것으로 보이게 디자인되었다. 이로써 옷을 입을 방법에 있어서 敏捷性を 追求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에서는 휴처리스트 남성복 성격으로 형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 ‘非對稱性’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미 선언문의 내용과 함께 스케치되었던 anti-neutral suit <그림 1, 2, 3>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앞 몸판의 左右 非對稱으로, 앞단 부분이 한쪽은 직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쪽 한면은 삼각형, 지그재그형, 빨형으로 되어 있고 자켓 단 처리도 한 쪽은 수평 다른 쪽 단 처리는 곡선, 사선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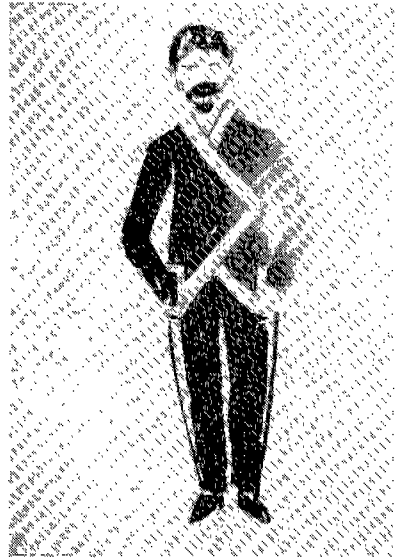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예는 1932년 크랄리(Crali)의 10가지 남성복을 디자인한 스케치이다. <그림 7> 많은 多樣한 色相으로 左右 몸판의 색상과 소매의 색상을 달리하여 색상면에서의 非對稱性を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의 형태면에서의 특징은 자켓 기장을 대체적으로 짧게 하고, V자형 네크라인으로 된 싱글 버튼 자켓으로 簡潔함과 敏捷性を 느끼게 하고 있다.

또 “독창적인 선의 對立적 배치가 있을 것”의 선언문의 非對稱은 1912년의 발라가 디자인한 수트 스케치<그림 8>에서 非對稱선이 서로 對稱的인 위치에서 양쪽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델 씨페(Delle Site)가 1933년 디자인한 자켓디자인 스케치를 보면 심플한 형태로 칼라와 커프스가 없이 수직적인 라인이 중앙에서 고정된



(그림 7) Crali의 suit연구, 1932



(그림 8) Balla 초상화의 의상 스케치, 1912

對稱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속에 입은 셔츠디자인의 경우는 非對稱形으로 칼라 부분의 한쪽은 길고 짧게 짧아져 있다.

전반적으로 수트 디자인은 형태면에서 칼라, 커프스, 밴드 등의 디테일을 없앤 싱글자켓으로 簡潔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셔츠의 앞중심을 깊게 절개한 선과, 몸에 꼭 맞는 스타일 추구로 敏捷性和 速度感を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면으로는 非對稱의 特徵을 갖는데 서로 다른 모양의 앞 몸판과 단처리, 非對稱 칼라와 非對稱 네크라인, 서로 다른 색상의 매치,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칼라

로 되어 있다. 이렇게 휴처리스트 남성복은 簡潔性, 敏捷性, 速度感, 非對稱性을 갖고 있다.

3.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색상과 직물 문양

휴처리스트 복식 선언문에 앞서 칸은 “中性色調와 單色の 엄정함(the neutral tones and the monochrome austerity)”이 破壞되고 있음을 認識했고 1910년 미래주의자들의 「테크니컬 선언」의 서문에는 “우리의 선언문에서 표현해야 할 것은 動的감각 즉 대상의 리듬, 선에 의해서 喜, 怒, 哀, 樂을 표현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 뒤 휴처리스트 복식 추구자들은 잠정하면서 바랜, 그리고 가공적이면서 어둡고 초라한 모든 中性의인 色調와 현학적이면서 학자연한 그리고 튜튼식의 모든 형태와 색조를 부정하여 검은색 상복으로 죽음을 哀悼하기보다는 빨간색 의복을 입고 영웅의 죽음을 祝賀하자고 하였다. 강렬한 색채, 즉 보라·빨강·초록·주홍등의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리의 어스름한 빛을 밝게 한 螢光色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에 보면 옷이란 즐거움을 주어야 하며, 휴처리스트 복식 디자인이 이런 문제를 解決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즉 과거의 옷들이 칙칙한 색상, 음산하고 우울한 또는 둔탁하고 선명하지 못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웃음이 없고 죽어가고 어두운 얼굴을 한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의 옷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휴처리스트 복식 추구자들은 이러한 要素를 排除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밝은 느낌을 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색상면에 있어서는 鮮明하고, 強하고, 밝은 색인 노랑, 오렌지, 버밀리온, 빨강, 자주, 터어키쉬와 같은 색을 사용하고 흰색, 회색, 검정색 사용을 拒否하였다.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색상끼리 코

디네이트시킴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과 즐거움을 자아내었다.¹¹⁾

또한 單一한 색상을 부분부분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드는 색감을 演出하거나 多様な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다이내믹함을 부여하였다. 즉 그들은 일찌감치 엄숙함(mournful)에 대하여 익살스런(playful), 우울한(melancholic)에 대하여 즐거운(cheerful), 中性色(grey)에 대하여 多彩로운(colorful), 傳統的인(traditional)에 대하여 短命한(ephemeral)이라는 반대개념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화된 도시를 심장부로서의 휴처리스트 복식의 새로운 색상은 삶의 生氣를 불어넣어주고 活力을 주며 지각력과 워트도 준다. 그러므로써 에밀리 브란(Emily Braun)의 표현처럼 밤색, 검정, 회색은 지루하고 慣習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원색적인 밝은 색상과 반사하는, 심지어 인공의 표면은 빛나고 풍성한 미래로 가는 길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¹²⁾

그리고 이미 非對稱 개념에서 보았던 크랄리(Crali)가 연구한 10개의 남성용 슈트 디자인(그림 7)에서 그는 몸판과 칼라를 다른 색상으로, 소매와 몸판을 다른 색상으로 메로는 左右 몸판의 색상도 다르게, 소매 좌우의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형태면에서의 簡潔함때문에 갖지 못했던 다이내미즘을 補充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이 밝고 강렬한 색의 사용, 同時性和 補色對比의 법칙을 응용한 색상의 조화, 비대칭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은 靜的인 옷으로부터의 탈피이고 非對稱선과 함께 더욱 動的인 감각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주의 조형이념에서 색채란 感性的인 認識이라고 하는 力動性, 同時性 그리고 運動性으로 연결된다¹³⁾와 일치하는 것을 복식에서도 보여 주고있다. 발라는 복식에 관한 그의 선언문에서 그의 아이디어인 活氣차고 기쁨에 찬 예술을

11) Enrico Crispolti, Il Futurismo e la Moda, Venezia : Marsillo, 1986, p.69.

12) Emily Braun, Ibid., p.34.

13) 柳時淑, “한국 現代繪畫에 나타난 未來主義的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2,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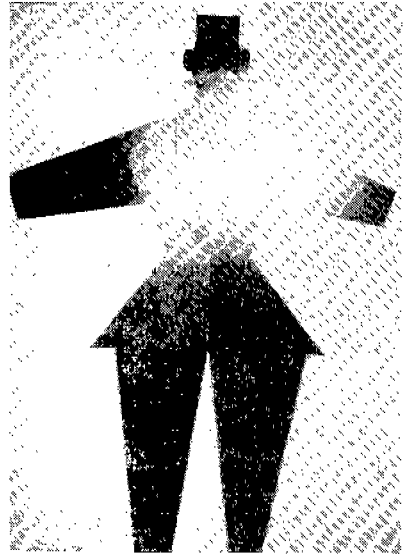
그의 주변 세계에 適用했다¹⁴⁾고 되어 있는 것처럼 색채면에 있어서 디자인은 “노란색과 파란색조로 된, 즐겁고 축제 같은 霧圍氣를 불러 일으킨다.”¹⁵⁾

그러나 마리네티의 경우는 휴치리스트 복식을 전쟁을 煽動하는 도구로 봄으로써, 이탈리아 國旗의 색인 흰색, 빨강, 초록의 색으로 바꾸어 긴장감과 자극을 부르는, 그리하여 선언문의 내용처럼 전쟁터에서의 명령처럼 긴박하면서 맹렬한 강한 색채는 강한 意志性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데페로(Fortunato Depero; 1892~1960)의 디자인을 보면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색감이 매우 강하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그림 9). 또한 1931년 그는 뉴욕 매가진인 《Sparks》의 9월호 걸표지와 1921년 카사다르(Casa d'Arte)의 포스터용으로 스케치를 그렸는데 그의 디자인은 아방가르드 精神의 犧牲으로 미래주의의 다이내믹한 면이 이탈리아 아르데코에 편입되었다¹⁶⁾고 볼 수 있다. 즉, 幾何學的 紋樣과 뚜렷한 色調 對比가 아르데코의 특성을 충분히 보여준다¹⁷⁾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는 몇벌의 유명한 조끼를 디자인하였는데 소재는 이탈리아어로 파노(panno)라고 하는 원단을 사용하였다. 형태면에서는 力動的인 움직임의 찾아 볼 수 없는 대신 소재 디자인에서만 다이내믹함을 느낄 수 있다(그림 10, 11). 그러나 휴치리스트 패션 디자이너들은 데페로의 조끼와 같은 난폭한 그래픽형으로 옷과 직물을 生産했지만 大衆시장패션(mass-market fashion)에 끼친 그들의 影響力은 미약했다.¹⁸⁾

미래주의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리듬, 動的 感覺의 표출을 통해 다이내믹한 화면을 創造했다. 그 역동성은 선의 힘으로 구체화되며 예각, 사선, 나선형이 잘 사용되었다.¹⁹⁾ 미래주의자들은 이러



(그림 9) Depero의 Verzocchi의상, 1924



(그림 10) Depero의 조끼《assemblage》, 1924

한 리듬, 動的 感覺의 표출을 캔버스에 그린 그림처럼 직물디자인에도 그려나갔다. 휴치리스트 남

14) Maurizio Fagiolo dell'Areo, Balla the Futurist, New York : Rizzoli, 1987, p.30.

15) Mary McLeod, Ibid., p.78.

16) Steven Heller & Louise Fili, Italian Art Deco, San Francisco : Chronicle Books, 1993, p.42.

17) Victor Arwas, Art Deco,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986, p.222.

18) Steven Heller & Louise Fili, Ibid., p.42.

19) 이영환, 서양미술사, 서울 : 박영사, 1971, p.347.



(그림 11) Marinetti가 입은 Depero의 조끼 《assemblage》, 1924

성복의 직물 문양을 보면 Paris Fashion이란 책에 서는 발라의 휴치리스트 복식에 대한 묘사를 분노, 속도, 공격에 대한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삼각형, 원, 나선, 타원을 사용한 소재 패턴과 색상으로ダイナ믹을 나타내며 고풍과 정지에 대한 혐오를 나타낸다고 하였다.²⁰⁾

이러한 직물 紋樣의 패턴의 예를 보면 발라의 경우 1930년 두번째와 세번째 앨범의 직물 문양은 다양한 모양의 삼각형, 사각형과 연속적인 짧은 사선이 작은 모티브를 가지고 方向을 바뀌가며 되풀이 하는 하나의 새로운 연속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반복과 움직임으로 리드미컬한 律動感을 보여주고 밝은 색상과 함께 다이내믹음을 만들었다. 또한 구심적·원심적 역할을 살리면서 무한한 輪轉의 드라마를 펼치는 듯한 원을 모티브로 사용하였고 색상은 심화된 깊이와 격렬함을 나타내어 動的인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갈래의 곡선과 곡면이 한 화면에 함께 어울리면서 새로운 秩序를 만드는 리듬의 운동감이 라든가 긴 지그재그의 사선의 空間感의 리듬을 타

고 이리저리 相互浸透하는 可變的 반복적 리드미컬한 운동성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림 12〉에서처럼 화면에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예각을 가진 힘찬 사선은 지그재그형을 이루고 부분적 곡선의 반복은 흐트러진 곡선의 亂舞를 이루면서 더 다이내믹하고 速度感이 있는 큰 터치의 힘의 리듬으로 직물 문양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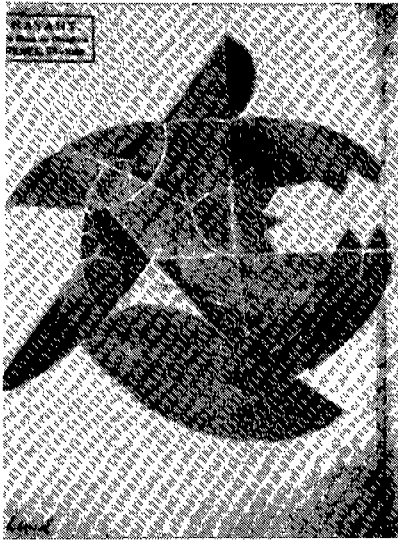


(그림 12) Balla의 《line of space and speed》의 직물문양 스케치, 1925-30

싸이아트도 직물 디자인을 하였는데, 주로 20년대 초 비오네(Madeleine Vionnet : 1876~1975)의 專屬 직물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는 신선한 이미지의 형태를 가진 작은 모티브가 서로 붙어져서 전체의 큰 모티브를 이루는 패턴을 주로 디자인했는데 여기서 하나 하나의 작은 모티브와 그 작은 모티브의 색상들이 어우러져서 만든 서로 다른 많은 색상들의 다이내믹함이 계속 유지되어 전체를 이루었을 때에는 환상적이고 세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흥분과 新鮮함을 준다. 그래서 그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合成된 전체색상을 잘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림 13〉

데페로는 20년대와 30년대 카사다뜨(Casa d'Arte)를 위해서 직물 디자인을 했으며 후랑코 스카라망드-실크(Franco Scalmandre-silk)라는 회사를 위해 몇몇 스케치도 했다. 그의 직물 디자인의 特徵은 환상적인 모티브이면서 規格化된 構

20)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Oxford University, p.230.



(그림 13) Thayaht의 직물 모티브, 1920~22



(그림 14) Depero의 직물문양 스케치, 1948

성이며,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색감이 매우 강하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느낌을 주었다. <그림14>

이와 같이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직물 디자인은 幾何學的이고 動的인 모티브와 그 모티브의 連續的인 반복이 나타나는 速度感과 律動感으로 다이 나믹한 직물紋樣을 이루고 있으며, 밝고 강한 색 상의 사용과 대비효과 등의 요소와 함께 다이 나믹한 特徵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 즉 미래주의의 다이 나믹한 순수한 정신적 意味를 형태와 색채에 담고자했던 바가 휴처리스트 남성복 紋樣으로 나 타난 것이다. 미래주의자들에게 있어 미래란 몹시 기대에 찬 흥분스럽고 영광에 들뜬 것으로 바라보 았는데 이러한 觀點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이 나미즘이며 그 다이 나미즘이 가장 잘 나타

난 곳은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경우 직물디자인이 라 할 수 있다. 이로써 現代生活의 빠른 템포의 리 듦은 다이 나믹한 직물 디자인과 非對稱 斜角선에 의해 환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액세서리

끝으로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에 주장된 복 식의 特徵은 短命性和 可變性으로 이것은 거의 동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短命性이란 概念은 이미 미래주의에 대한 마리네티의 정의에서 생활-예술-단명성(life-art-ephemera)에서 보여지고 있으며 예술 그 자체와 예술의 법칙을 超越하려는 끊임없 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미래주의 건축설계에서 상테리아(Antonio Sant'Elia, 1888~1916)도 돌이나 벽돌로 된 오랜 건물의 장식과잉이나 기념비적인 것보다 生活하고 소비하기 위한 건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은 우리들보다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모든 世代가 각자의 길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건축적 환경의 끊임없는 變革’을 제기하였으며, 傳統과 訣別하고 처음부터 재 출발 한다는 直觀에 따라서 과거와 결정적으로 단 절한다. 따라서 “미래주의 건축의 기본적 성격은 변하기 쉬운 잠정적인 것에서 조형이나 선의 어떤 관례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미래파적 환경인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우연하고, 순간의 성격을 지닌 환경의 ‘대구조’가 이미 설계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미래주의 건축도 短命性을 띠고 있다.

그리고 構造의 개념에서 건축과 옷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허드(Chernt Fitz Gerald Heard, 1889 ~1971)는 그의 저서 <의복의 해부(An Anatomy of clothes)>라는 책의 나르시스(Narcissus)란 제목의 마지막 장인 “미래의 패션(The Future's Fashion)”에서 의복과 건축의 미래를 위하여 2가 지의 兩者擇一적인 方案을 제안했다. 前者는 미래 주의자들을 연상하게 하는것으로, 윤곽이 뚜렷하

고 친밀하고 편리한 옷을 강조하는 것 같은 좀 더 밝고 강한 이미지의 건축이다. 색상은 빌딩의 표면위로 되돌아 올 것이고 남자 의복은 열기로 반사될 것이다. 後者は 건축은 옷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엔지니어링과 같이 좀 더 엄밀하고 덜 친숙한 몇몇 다른 예술은 건축을 대신할 수 있다. 허드가 규정한 것의 핵심을 좀 더 밝고, 좀 더 기능적인 옷인 것이다.²¹⁾

이러한 건축 構造의 기능적인 의상과 도시 노동자들의 출현과 함께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反響²²⁾으로 劃一的인 것에서 벗어나 感性을 중요시하는 노력은 휴처리스트 남성복에 可變性을 줄 수 있는 옷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가변성은 모디휘간티(modificanti 伊; modifier 英)를 出現시켰다.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모디휘간티란 셔츠, 자켓 또는 타이 등에 부착하는 작은 장식용 뺏지와 같은 것으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와 재질,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휴처리스트 복식에 다양성을 띠고 融通性있게 適用되었다. 즉 이것은 趣向에 맞는 모디휘간티를 사용함으로써 복식 外形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액세서리로서의 可變性있는 의상 연출에 사용된 중요한 概念이다. <그림 15>는 다양한 모양의 모디휘간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 Modificanti, 1914

또한 이러한 모디휘간티는 사람의 外貌에 환상과 감정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要素로써 도입되었다. 즉 리스타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발라는 향기로 입혀지는 ‘모디휘간티’의 사용을 豫見하였는데 이 ‘모디휘간티’의 아이디어는 의복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이다. 일종의 선박용 신호불빛과 같은 ‘모디휘간티’는 인간적인 接觸을 容易하게 해주고 紐帶關係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²³⁾ 그리고 착용자가 조정함으로써 變化를 줄 수 있는 작품인 것이다. 모디휘간티의 選擇은 착용자의 즉각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多樣하게 연출되므로 착용자의 意志는 박물관 崇拜를 破壞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불건전하고 永續的이라 할 수 있는 所有와 身分證明이라는 환상적 창조와는 對照를 이룬다. 그러므로 모디휘간티를 이용한 審美的 創造는 무궁무진하며 多樣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선언문에서 모디휘간티는 多樣한 소재와 넓이, 두께, 디자인, 색상이 조합된 것으로 발라가 디자인한 모디휘간티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3년과 14년 사이에 발라는 캔버스의 2차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試圖를 例證하는 중요한 작업을 實行하였다. 휴처리스트 복식을 위한 색깔있는 종이 꼴라주로 된 모디휘간티로 새로운 소재 表現을 試圖한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의 속력과 소음형태를 금색종이 위에 니스를 칠하고, 두개의 선을 抽象的 속도 표현으로, 하나는 망사위의 오일페인트로 다른 하나는 골판지위의 니스로 表現하였다.

원하는 곳에 배치를 달리하거나 多樣한 색채와 디자인의 조합이나 재질의 결합 또는 擴大로 원하는 때에 變化를 줄 수 있는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概念을 에밀리 브란(Emily Braun)은 “변형할 수 있는(transformable)”이란 용어로 紹介하였고 着

21) Mary McLeod, “Undressing, Architecture : In Fashion, Gender and Modernity”,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1, p.80.

22) Giovanni Lista, Balla, Ibid., p.61.

23) Giovanni Lista, Balla, Ibid., p.57.

用者를 先例가 없었던 ‘자기 스스로의 표현(self expression)’으로 變身시킨다고 하였다. 이렇게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새로운 혁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區別되어 보여질 뿐만 아니라 心理적으로 新鮮한 感覺을 불러일으키어 새롭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또한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언문에는 “모디휘간티에 의한 形과 色의 조화로 단명하고 個別的인 創造를 하라”고 提案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이런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가장 柔軟한 中流階級の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옷의 사회적 方面으로서의 象徴的 價値가 분명히 결정되어진 집단과 개인과의 滲透的인 과정을 前提로한 것이다.²⁴⁾ 그리고 可變性을 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 휴처리스트 남성복은 “전기불 램프로 장식되어진 (decorated with electric lamp)” 옷을 豫見하였는데 이는 발라의 타이가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傳統의인 스타일의 타이를 拒否하고 휴처리스트 남성복에 어울리는 새로운 타입의 타이 도안을 試圖한 것이다. 유로 시비스(Euro Civis)에 보고된 간질로(Francesco Cangiullo)에 따르면 그 당시 발라는 불꽃이 튀고 무지개빛이 움직임에 따라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깜박거리고 현란한 셀룰로이드로된 타이(flickering and dazzling celluloid ties)”를 着用하였다²⁵⁾고 되어 있다. 발라는 이를 “똑같은 抽象的인 것들에 의해 표현된 다이내믹한 그림들(dynamic pictures expressed with abstract equivalents)”이라는 또다른 表現을 사용하였다.

디 보소(Di Bosso)의 타이(cravatte)는 一般的인 형태의 타이가 목을 두르고 앞에서 여미는 것과는 다른 스타일인 앞에서 單純하게 고정시키는 安티 크라바트(anti cravatte)였다. 또한 이것은 平凡한 소재를 사용하는 타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타이로, 매우 가벼운 메탈릭 소재였으며 이 타이

를 착용한 사람은 知的이고 강한 印象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델 씨페의 경우는 그의 와이셔츠의 칼라 디자인이 매우 다양한 만큼 그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디자인의 타이를 선보였다. 非對稱 칼라에 금속으로 된 기하학적 형태의 플라케(plache)를 사용하였다. 소재는 보통 알루미늄이나 골드나 실버로 된 메탈릭으로 光彩를 띠고 있다. 이 타이는 左·右측 칼라 사이의 공간을 다양한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산업화된 도시의 固定觀念은 미래주의자들을 자극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하였다. 자신이 타인과 區別되고 다르게 보이기를 원했던 그들은 外形을 多樣하게 變形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디휘간티의 開發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선언문의 내용처럼 언제 어디에서든지 의복의 어느 부분이건 재배치 또는 變化를 주는 방법으로 多樣한 형태를 追求하였다. 때로는 그 변화가 놀랄 수도, 압도적일 수도, 불안정할 수도, 決定的일 수도, 好戰的일 수도 있다. 즉 환상과 감정을 불어넣어 주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듯 휴처리스트 남성복의 모디휘간티는 新鮮한 感覺을 불러일으켰고 差別化된 착장 모습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분 상징의 의복개념을 탈피하고 固定觀念화된 도시 노동자들의 복식을 반대하는 中産層 문화의 產物로 패션을 자리매김하면서 현대화된 文明 속에서 固定觀念화된 도시 노동자들의 복식을 반대하는 簡便하면서도 可變性있는 의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모디휘간티의 사용으로 人間 關係를 上昇시킬 뿐 아니라 의복을 통한 개인의 審美行爲가 연출되었다. 그리고 끊임없는 變化의 추구로 短命性을 요구하였다. 多樣한 소재, 多樣한 표현 행위의 공연예술가로서 審美行爲의 創造는 끊임없는 것이며 항상 새로운 것의 追求로 短命한 것이다.

24) Giovanni Lista, Balla, Ibid., p.61.

25) Giovanni Lista, Giacomo Balla Futuriste, Ibid, p.75.

IV. 결 론

文化的 革命家로서 都市文明을 認識한 휴처리스트 복식 추구자들은 의복의 새로운 革新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문서화된 선언문으로써 휴처리스트 남성복이 갖추어야 할 11가지 特性을 주장하였고, 복식으로 표현된 그 실례들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攻撃性은 마리네티가 鬪爭을 부추기고 전쟁을 煽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식에 사용하였다. 그는 攻撃的이고 자극적인 색채와 예리하고 幾何學的인 선들을 사용하고 緊張感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강한 색상을 사용하여 投爭精神을 의복에 표현하였다.

敏捷性은 날렵한 선과 簡潔한 形態를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디테일의 除去와 簡潔한 形態로 의복에 速度感을 주었다.

力動性은 미래주의자들의 관심 주제인 리듬, 速度, 다이내미즘을 반영하여 직물문양으로 표현되었다. 즉 幾何學的의 모티브와 반복되는 連續性으로도 안된 律動的이고 速度感있는 패턴으로 力動성을 表現하였다. 또한 밝고 강한 색상의 다양한 사용, 강한 對比효과, 非對稱的인 색의 사용은 패턴의 力動感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單純性과 便宜함은 직선과 사선으로 된 幾何學的인 簡潔한 패턴의 사용과 근육을 속박하지 않는 非對稱 절개선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인체의 活動성을 고려한 패턴과 입고 벗기에 簡便함을 주기 위한 두따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복이 더이상 身體를 拘束하지 않는 편안한 스타일이 되고 또한 단순한 스타일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簡便한 스타일의 의복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實用性을 중요시하였다.

衛生性은 幾何學的인 평면 패턴에 부분부분을 活動性과 通風性을 고려한 무를 사용하는 방식과 신체를 拘束하지 않는 절개선을 사용하였다.

活氣참은 현대화된 都市의 알록달록한 색으로 삶의 生氣를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밝고 강한 색을

사용하고 색의 對比的인 效果 또는 漸進的인 效果를 주며 작은 부분부분의 색채들이 結合되어 의복에 즐거움과 활기를 주게 만들었다.

發光性은 螢光직물의 사용을 주장하였는데, 복식에서는 그 實例를 찾지 못하였지만 넥타이와 모디휘간티에서 금속성 소재 및 非慣例的인 소재의 사용으로 키네틱 아트와 같은 연출을 하였다.

강한 意志性은 마리네티가 전쟁을 煽動하기 위한 鬪爭精神을 나타낸 強烈한 색상과 攻撃的인 선을 사용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다. 그의 非對稱 절개의 사선과 예리한 삼각형, 사각형의 모티브 또는 지그자그 사선 등은 攻撃的이고 幾何學的인 선으로 긴장감과 자극의 강한 意志性을 보여준다. 아울러 색의 象徵性과 선동적인 합성체의 색으로 강한 그의 理念을 表現하였다.

非對稱性은 과거 복식의 지루하고 憂鬱한 느낌이 對稱的인 선에서 온다고 보고 非對稱 절개선과 非對稱的인 몸판, 칼라, 넥라인, 소매, 헨라인과 非對稱的인 위치에서 색상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非對稱性은 靜的인 복식이 아닌 動的인 복식으로 즐거움과 活氣를 불러일으키는 휴처리스트 남성복이 되는 것이다.

短命性은 미래주의 예술 자체의 基本 理念으로 끊임없는 變化와 持續的인 創造 精神을 추구하는 것으로 可變性으로 나타났다.

可變性은 文明화된 都市의 固定觀念化된에 대한 도시 노동자를 의식한 反響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며 누구든지 다양한 소재, 디자인, 색상 등을 조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變化를 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연출할 수 있도록 모디휘간티를 사용함으로써 각자의 審美的 行爲의 差別化를 試圖하였다. 이로써 의복은 더이상 階級區分이 아니고 着用者가 變形시킬 수 있는 自己表現의 審美的 創造이다. 이러한 審美的 創造는 무궁무진한 것으로 미래주의의 끊임없는 未來 追求 精神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휴처리스트 복식 추구자들이 주장한 남성복에서의 敏捷性, 單純性, 非對稱性, 可變性,

短命性은 速度의 美學과 實用의 美學이 복식에 표현된 것으로 이는 현대의상에 있어서 현대생활의 빠른 템포와 어울리는 敏捷性있는 簡潔하고 便宜한 복식으로 현대복식의 방향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색상면에서 색이란 생기를 주는 것으로 보았고, 삶의 활력을 주듯 의복에 활력을 부여하여 주기 위하여 밝은 색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디자인이 單純해 지면서 색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복식의 현상과도 一脈相通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소재면에서 非관례적인 소재의 사용을 보여줌으로써 과학문명시대의 의상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휴치리스트 복식 추구자들은 남성복식에서 時代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앞서서 把握하였을 뿐만 아니라 時代를 미래로 主導해 나가는 새로운 美로서 革新的인 복식을 주장하였다.

參考文獻

1. 柳時淑, “韓國 現代 繪畫에 나타난 未來主義의 요소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 이영환, 西洋美術史, 박영사, 1971.
3. Mayer, R.N. (장남준 譯), 世界 喪失의 文學, 흥성사, 1981.
4. Giovanni Lista(정진국 譯), 미래파, 열화당, 1991.
5. Emily Braun, “Futurist Fashion”, Art Journal, spring 1995.
6. Enrico Crispolti, Il Futurismo E La Moda, Venezia : Marsillo, 1986.
7. Giacomme Balla, Il Vestito Antineutral : Manifesto futurista, Millan : Volantino della Direzione del Movimento Futurista, 1914.
8. Giovanni Lista(Howard Rodger MacLean 譯), Balla, Modena : Galleria Fonte d'Abisso, 1982.
9. Giovanni Lista(Margaret Yaldwin 譯), Giacomo Balla Futuriste, Lausanne : L'Age

d'Homme, 1984.

10. Joshua C. Taylor, Futurism, New York : The Museum of modern art, 1961.
11. Maurizio Fagiolo dell'Areo, Balla the Futurist, New York : Rizzoli, 1987.
12. Mary McLeod, “Undressing Architecture : Fashion, Gender, and Modernity”, Architecture : In Fashion,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13. Steven Heller & Louise Fili, Italian Art Deco, San Francisco : Chronicle Books, 1993.
14. Victor Arwas, Art Deco,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986
15.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Oxford University, 1988.
16. Volt (Vincenzo Fani), “Manifesto della moda femminile futurista”, Rome : Roma Futurista, Feb, 1920.

ABSTRACT

A Study on the Futurist Men's Manifesto and Clothing Design

The works of the Futurism were developed along with manifestos and statement in publishing “The Foundation and Manifestos of Futurism”. Futurist aesthetic and ideological agenda on futurist fashion displayed in manifestos on clothes. It was propagated in consummate Futurist style through the written manifestos.

The Futurists anticipated much of modern fashion phenomenon. In Futurist Men's Clothing in 1914, they believed continual, renewal of our today's clothes. Today's clothes is much more simple than yesterday's clothes. The oppositions of the type between yesterday's

clothes and today's clothes are mournful-playful, melancholic-cheerful, grey-colorful, traditional-ephemeral. Futurist men's clothing is aggressive, agile, dynamic, simple and comfortable, hygienic, gay, luminous, volatile, asymmetric, ephemeral, and variable.

In general, the Futurist argued for clothes

that promoted simple and functionality. They made dynamic patterns in textile design and asymmetric, geometric cuts in pattern making. They suggested an unconventional materials and strong, bright colors and modificanti. These elements pointed the way to a shimmering, exuberant future.